

티토에게 보낸 서간

1. 책의 이름

- 사목서간으로 분류하며 티토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오지만, 3장 안에 교회의 사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.

2. 저자 및 저술 연대

- 티모테오서간과 마찬가지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기원후 100년경으로 보고 있다.

3. 구조

- 1,1-16 : 크레타 섬에서 티토가 할 일
- 2,1-3,11 : 건전한 교훈
- 3,12-15 : 개인적 권고

4. 내용

- 이 서간은 세 장에 불과한 짧은 분량이다. 하지만 사목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,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, 이단자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그만큼 오늘날 사제와 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하고 묵상해야 할 내용이 많다. 그럼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.
- “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.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,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,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,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” (티토 1,7-9)
- 이 서간은 이어 모든 가르침을 ‘ 이웃을 위한 태도’ 로 결론 맺고 있다. 이웃을 위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‘ 선행’ 이다.(티토3,8)(티토 3,9-10)
-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과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이 편지에서 저자는 디도에게 감독과 장로들을 임명하여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할 것과 이단설을 거슬러 싸우고 교회 내 각계각층의 신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권고한다.
- 디도서는 그 내용과 배경이 디모테오 1서와 매우 비슷하다. 즉 이 두 서간에서 발신인이 수신인들에게 사목자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사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에 대해서 힘 있게 말한다. 특히 2,11-14절과 3,4-7절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교적 진리를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다.